

레전드 박지성, 감독 안 하는 '뜻밖의 이유' 고백

등록 2026.06.02 14:43:54



[서울=뉴시스]박지성(사진=유튜브 캡처) 2026.06.02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남정현 기자 = 전 축구선수 박지성이 감독으로 활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.

1일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에는 '월드컵 앞두고 박지성 만나 대표팀 훈수두는 축구 대부 이경규'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.

이경규는 박지성에게 "(해설을 할 때) 어떤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 야단을 치거나 지적할 때 굉장히 경감 있게 하더라"고 말했다. 박지성은 배성재와 함께 JTBC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진으로 나선다.

박지성은 "아무래도 제가 말하는 것이 선수들에게 크게 다가갈 수 있으니 선수 입장에서 많이 대변하려고 노력한다"고 설명했다.

또 이경규는 "감독이라든지 길을 걷지 않고 유소년 축구 쪽 일을 하고 있다. 어떤 생각을 갖고 그쪽 일을 하냐"고 물었다.

박지성은 "선수 생활할 때 감독님들을 많이 겪어 봤는데 감독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다"고 답했다.

그러면서 "선수들에게 호통을 칠 땐 호통을 쳐야 하는데 그걸 못 한다. 그걸 저는 갖고 있지 못 하다고 생각해서 감독은 하지 않을 마음을 먹었다"고 덧붙였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nam_jh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